



김영대 기자

kyd@steelsteel.co.kr

스틸데일리

특집 2 분기 전망-철근

안심할 수 없는 성수기

훗날 2024년 1분기 철근 시장은 혹독한 시기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전방산업인 건설과 부동산 시장 경기가 살아나질 못하면서 철근 수요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더 부진한 시장을 맞닥뜨렸다.

성수기 초입이 포함되어 있는 1분기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성수기가 무르익어가는 2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상 상당히 낮아진 게 사실이다. 특히, 총선 이후 시장에 대해서 다방면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만큼 선불리 예년과 같은 성수기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많은 관계자들이 걱정을 안고서 시작하는 2분기 철근 시장을 건설지표와 스틸데일리 자체 조사 자료를 통해 내다봤다.

건설 선행지표, 긍정적 평가 어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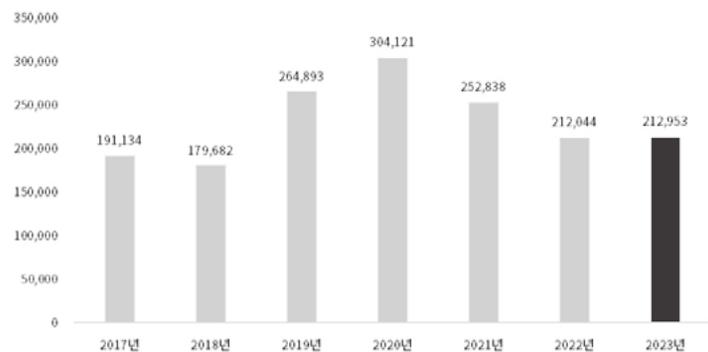
통상 철근 수요를 6개월 이상 선행한다고 알려진 건설 관련 장기 선행지표부터 살펴보면 사실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횡보하거나 혹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4분기 주거용 건설수주는 21조 2,9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21조 2,044억 원 대비 0.4%가량 소폭 늘어났다.

최근 공사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수주금액도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횡보 혹은 감소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연도별 4분기 주거용 건설수주

단위: 억 원
자료: 대한건설협회



연도별 4분기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인허가 연면적

단위: 만 m²
자료: 국토교통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인허가 연면적은 건설수주보다 상황이 더욱더 좋지 않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은 2,283 만m²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0.5% 크게 줄어들었다. 4분기만 놓고 보면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심각성이 짙다.

철근 수요를 한참이나 앞서 선행하기 때문에 장기 선행지표가 철근 수요와 모두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표상으로 2분기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감되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 동행지표, 지표상으로는 회복세

단기 선행지표나 동행지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비슷하거나 소폭 나아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에서 경계심을 늦추기는 어렵다.

철근시장을 3개월~6개월 단기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공동주택 분양실적의 경우 올해 1월 1만 3,830호, 2월에는 1만 857호를 예상하고 있다. 1, 2월 모두 지난해보다는 선방한 모양새다.

다만, 지난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청약홈' 개편으로 인해 분양을 서두른 건설사들이 더러 존재하는 등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양립했던 만큼 마냥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동행지표로 인식되는 올해 1~2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착공 연면적은 총 842만m²로 전년 대비 22.3% 증가했다. 지난해보다는 실적이 개선됐으나 지난해를 제외하면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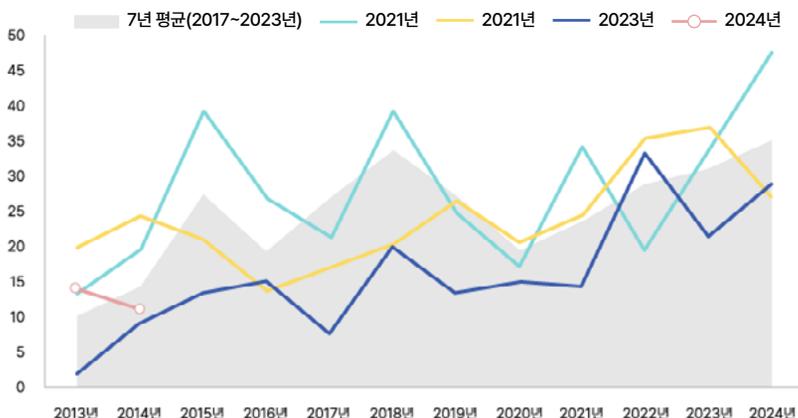
결과적으로 동행지표는 여전히 바닥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지만 회복세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선행지표 대비 다소 긍정적인 실적이 나타나는 중이다. 올 들어 건설기성도 늘어나는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지표 상으로는 지난해보다 시황이 개선된 모습이다.

1분기 보다는 낮겠지만 설부른 기대는 금물

앞서 지표상으로 살펴본 바와는 선행지표는 부진한 반면 동행지표는 조금이나마 회복세를 드러냈다. 이미 수주해 놓은 현장에 한해서는 공사를 시작하려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월별 공동주택 분양 실적

단위: 천 호
 자료: 국토교통부
 주: 2024년 2월은 예상치



특히, 철근 시장에서 2분기는 4분기와 함께 성수기로 불린다. 날이 추워지고 한 해가 끝나가는 4분기보다는 2분기를 연중 최대 성수기로 손에 꼽는 관계자들도 적지 않다. 오는 2분기 철근 수요가 적어도 1분기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실제 한국철강협회 분기별 명목소비량(내수+수입)을 살펴보면 통상 1분기보다 2분기 수요가 적게는 7%, 많게는 20% 이상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 선행지표가 부진한 상황이고 올해 1분기 명목소비량도 근래 들어 가장 부진한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2분기 가파른 수요 증가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월 총선 이후 건설-철근시장 방향성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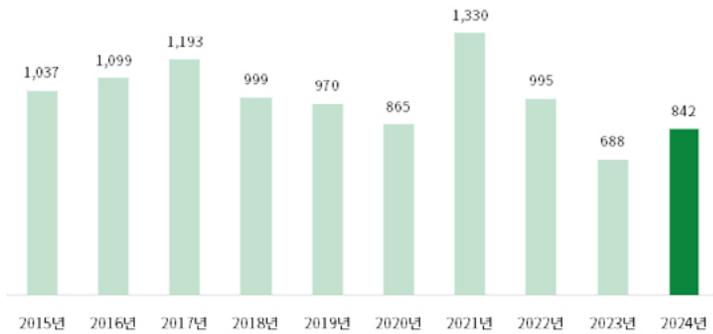
총선과 맞물려 사실 여하와 관계없는 '건설업계 위기설'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을 정도로 총선에 대한 철근 시장의 관심은 뜨겁다.

부동산 PF대출과 연계된 건설사 리스크는 물론이거니와 신규 수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선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정국의 불확실성이 잦아들고 여론이 변화하면서 건설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철근시장의 향방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연도별 1~2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착공 연면적

단위: 만 m²
자료: 국토교통부



2023년 철근 명목소비 예상 추이

단위: 만 톤
자료: 한국철강협회, 스틸데일리

